

다문화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공수연 · 양성은*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전공

Kong, Su Youn · Yang, Sungeun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explore the adaptation process for immigrant women and their Korean spouses through a qualitative method. It is aimed at understanding how immigrant women and their Korean spouses have adjusted to their lives in Korea over the last 10 years and how they have dealt with difficulties in the adaptation process. The participants were 15 intermarried couples consisting of a Southeast Asian wife and a Korean husband. They got married through matchmakers and have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8 and 13. The study carried out in-depth interviews. To analyze the interview data, the qualitative software program Nvivo8 wa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immigrant women and their Korean spouses experienced confusion at first. They struggled adapting to each other's lifestyles and made efforts to establish harmony. In the end, they made their own family identity as a multicultural family. The study widens the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by focusing on both wives and husbands. Also, the use of the Nvivo8 software strengthens the reliability of the data analysis. The results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interracial couples with the adaptive strategies.

Keywords: intermarried women, korean spouses, adaptation process, multicultural family, identity

I. 서론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도 본격화되었다. 처음으로 공개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외국인 국적 별 분포에 따르면, 외국인 남성은 미국 · 일본 · 캐나다 · 독일 · 영국 · 프랑스 등 선진국 출신이 12만3천946명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하고, 한국인과 가정을 이룬 외국인 여성의 경우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캄보디아 등 아시아 개발도산국 출신이 11만5천934명으로 전체 85.9%를 차지해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조선진국 · 母개도

국 출신, 한국 다문화가정”, 2009). 이와 같은 통계는 한국 여성은 선진국 출신의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있으며, 한국남성은 개발도산국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사실을 반영하듯 국제결혼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인 남성과 개발도산국 출신 여성과의 이혼을 급증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2008)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인과 외국인의 이혼건수는 총 이혼건수의 9.7%에 해당하며,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이혼은 2007년 보다 큰 폭으로 증가(39.5%)하였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출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국제

* Corresponding author: Yang, Sungeun
Tel.: 032-860-8117, Fax: 032-865-5228
Email: syang@inha.ac.kr

결혼 건수의 증가와 함께 이혼을 급등이라는 현실은 국제 결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립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보건복지부(2005)에 따르면 대다수 국제결혼 부부는 부부갈등, 언어차이와 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 발달이 지체되어 학습 이해도가 낮고, 단지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 과 한국인 남편의 부부갈등문제 외에 한국에서 다문화가족들이 부적응을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문화가족의 부적응이라는 현상에 대해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시각은 연일 보도되는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확인 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국제결혼 이혼상담, 女 폭력 男 가치관(“국제결혼 이혼상담, 女 폭력 男 가치관”, 2009), 이주여성이 울고 있다(“이주여성이 울고 있다”, 2009), 한국 시집 온 지 1년 만에 음독, 스무 살 뚜엿 전신마비(“한국 시집 온 지 1년 만에 음독, 스무 살 뚜엿 전신마비”, 2008) 등이 그것인데, 다문화가족들은 가치관 차이, 경제 갈등, 생활양식의 차이, 가족갈등 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한 다문화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제기한 선행연구와 대중매체들의 움직임들은 다문화가족을 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대상 또는 사회복지의 수혜자로 여기게 하는 사회인식의 전환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다문화가족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만으로는 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또 다른 다문화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에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이라는 맥락에서 되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다문화가족들이 일제히 겪는 어려운 적응과정 속에서 어떠한 극복전략을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한국정착이라는 것이다. 아쉽게도, 선행연구들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에 공감함을 끌어내고, 대책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공헌 하였지만, 다문화가족들이 당

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갔는지에 대한 역할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의 적응을 과정중심(process-oriented)으로 탐색하지 못한 제한점을 갖는다. 게다가 남편의 폭력, 언어미숙, 정체성 혼란 등 다문화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나치게 부각함으로써 다문화가족하면 한국에서의 부적응이라는 공식을 성립해 사람들에게 오�히려 편견을 심어 놓고, 바람직한 적응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때문에 바람직한 적응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통해 이들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과 배우자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통해 적응과정을 탐색해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했는가에 대해 심층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한국인 남편의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보는 견해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혼이주여성 과 한국인 남편의 적응과정이라는 연구목적에 부합된 연구들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부갈등,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부부갈등

결혼이주여성 과 한국인 남편의 적응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제결혼 한 다문화가족의 부부관계이다. 다문화가족을 다룬 연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부부갈등에 대한 주제이다. 초기 연구에서 다문화가족들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문제제기 되었다면 최근 들어 부부간의 갈등을 연구함으로써 다문화가족들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려고 하였다. 부부갈등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는 김오남(2006), 이정희(2006), 최금혜(2007), 한건수(2006)의 연구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입국 후 기대의 좌절을 겪고, 음식과

주거양식을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을 겪으며, 가족 및 친족생활에 적응하는 시기에서 고부갈등, 남편과의 갈등, 자녀양육에서의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건수, 2006).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남편의 무시, 신뢰의 부재, 차별과 편견, 간섭과 통제, 인식의 차이, 성격 차이, 나이차이, 폭력 등이 원인이다(최금해, 2007).

김오남(2006)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부갈등 및 학대를 살펴보고, 사회문화적 변수들이 부부갈등 및 학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부부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부부갈등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할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을수록, 문화정체감에서 분리된 태도를 갖을수록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친인척관계, 여가문제, 생활습관의 차이,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상황이 전이되어 이혼위기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이혼을 촉진시키는 요인을 가정폭력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상태에서 변화하지 않는 남편, 본인들의 가치관 변화와 자아성찰, 경제적 자립 확보 등이 이혼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이정희, 2006).

2. 다문화가족의 적응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관련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인 남편 간에 입장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춰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적응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결혼이기 때문에 결합의 순간부터 문제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을 어려워한다. 셋째,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적응을 어렵게 만들며, 넷째, 사회적 고립 및 지지자원이 부재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적응문제를 일으킨다(김오남, 2008).

한편, 한국인 남편들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기 보다 국가 간, 인종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부역할이나 가사노동분담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의 부족보다 아내나라의 언

어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교재를 구하기 어렵기도 하며, 결정적으로 한국남편은 나이가 많고 배움에 대한 의욕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온 아내가 한국말을 배우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옥희, 홍달아기, 2008). 즉, 결혼이주여성들은 권위적인 관계에서 충동을 겪으며, 한국인 남편들은 부부역할이나 가사노동분담 등 역할로 인한 갈등을 겪는다고 요약될 수 있다.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소개되어진 부적응의 요소인 권력관계, 역할갈등의 측면을 조명할 여지가 있다.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현상은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인 남편 모두 두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에서 유독 결혼이주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을 피해자로 간주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결혼이주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적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또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으로 서술된 논문들도 있다. 그렇지만, 국제결혼 한 남성들의 연구는 그동안 배제되었으며, 심지어 많은 논문에서 폭력을 일삼고, 가정불화를 만드는 원인제공자로 등장한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인 남편을 모두 포함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도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다만,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만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혼돈과 갈등의 단계를 거쳐 둘러보고 시도해보는 단계에 이르며, 조화로운 위치를 찾음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으로 뿌리내리기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고되었다(구차순, 2007).

적응(adaptation)이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양호한 삶의 상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Barker, 1991). 즉, 환경과 개인의 욕망을 조절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인 남편은 한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인데, 한국이란 환경에 적응하기에 앞서 이들은 부부간 적응을 해야 한다. 두 가지 문화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들에게 적응이란 개념의 핵심은 바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자신이 속했던 사회에서 벗어나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또 다른 사회로 들어가는 경우, 집단적인 문제(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변화)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Gibson, 2001).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극복하고 한국정착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선 적응전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출생연도 (만나이)	출신국가(국적)	결혼 기간	동거가족	학력	직업	경제 지원
1	이한미	1969년(40)	11년	부부, 아들1, 딸1	대학원	상담사	
	장봉기	1967년(42)			한국	초등학교	
2	이다벨	1965년(44)	12년	시아머니, 부부, 아들1,딸1	4년제대학	주부	차상위
	박기선	1957년(52)			한국	전문대학	
3	쓰리과	1970년(39)	14년	부부, 아들2	4년제대학	생산직	
	송완오	1969년(40)			한국	고등학교	
4	아마나	1966년(43)	13년	부부, 딸2	4년제대학	주부	기초 생활 수급자
	손상구	1959년(50)			한국	중학교	
5	이지형	1972년(37)	12년	부부, 아들1	4년제대학	주부	
	최순영	1965년(44)			한국	고등학교	
6	우랑	1972년(37)	10년	부부, 아들1 딸1	고등학교	주부	
	박석구	1966년(43)			한국	4년제대학	
7	안젤라	1970년(39)	14년	부부, 아들1, 딸2	대학원	영어강사	
	이성규	1964년(45)			한국	고퇴	
8	로린스	1965년(44)	10년	시아머니, 부부, 아들2, 딸1	대학원	주부	
	임병균	1964년(45)			한국	고퇴	
9	티나	1968년(41)	12년	부부, 아들2, 딸1	4년제대학	가이드	기초 생활 수급자
	김원대	1966년(43)			한국	중학교	
10	김태윤	1972년(37)	10년	부부, 아들1, 딸1	전문대학	주부	저소득 지원
	조범호	1968년(41)			한국	고퇴	
11	클레오	1970년(39)	13년	부부, 아들1, 딸1	4년제대학	영어강사	
	최경녹	1961년(48)			한국	초등학교	
12	랏늑차	1979년(30)	9년	부부, 딸1 남1	전문대학	일용직	
	신재용	1969년(40)			한국	고등학교	
13	구마수	1967년(42)	9년	친정어머니 부부, 딸1, 아들1	4년제대학	생산직	장애 수급
	이형추	1960년(49)			한국	초등학교	
14	센아티	1975년(34)	10년	부부, 아들2, 딸1	4년제대학	주부	
	김용국	1967년(42)			한국	중학교	
15	잔나타	1971년(38)	11년	부부, 아들3, 딸1	4년제대학	자영업	장애 수급& 저소득 지원
	임경선	1965년(44)			한국	고등학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적응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의 적응전략이라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의 폭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이혼하지 않았으며,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중매결혼 한 초혼 도시다문화가족 부부로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이다. 이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이혼을 급증이라는 현실에서 이혼하지 않고 국제결혼 부부의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적응에 국한되었던 선행연구를 확장적으로 국제결혼이 초래하는 첨예한 쟁점 즉, 이혼한 다문화가족의 90.1%가

자녀가 없다(통계청, 2008)는 점, 중매혼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종의 매매혼적 성격을 띤다(보건복지부, 2005)는 점, 대부분 초혼으로 이루어지고, 점차 도시로 이주하는 특성(최연실, 2008)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고, 인종적, 언어적으로 극명하게 구분되는 비동질 집단인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을 선정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의도적인 선택은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인데, 본 연구에서는 Goetz와 LeCompte(이용숙, 김영천에서 재인용, 1998)가 제시한 준거적 선택방법 중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전형적 사례선택(typical case selection)방법을 사용하였다. 때문에 연역적인 인과관계의 검증보다는 이들의 상황이나 현장에 접근함으로써, 연구참여자가 속한 맥락 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관계, 상징적 상호작용, 관점, 가치관, 신념 등을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앞서 연구참여자 수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면접을 진행하면서 ‘포화(saturation)상태’가 될 때까지 면접을 진행하였다. 눈덩이표집방법을 사용하여 모집한 연구참여자 수는 결혼이주여성 3명과 배우자 15명으로 총 30명이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구참여 당시의 상황이며,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개별심층면접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인 개별심층면접에 앞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 3명, 한국인 남편 1명, 다문화가족 자녀 2명 총 6명의 참여자들과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조사와 동일한 준거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준거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연구 주제에 적합한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연애결혼과 중매결혼은 다른 유형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적응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10여년의 한국생활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한국인 남편의 시각이 결혼이주여성의 시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한국인 남편을 연구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분석의 과정에서 부부단위 분석 이외 가족단위 분석이라는 또 다른 관점이 있어 연구범위가 광범위해지므로 본 조사에서는 연구참여자에서 제외시켰다. 이로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참여자들의 준거는 연구주제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조사는 2009년 3월 6일부터 2009년 4월 6일까지 개별심층면접으로 진행되었고, 참여자 개인별 평균 면접 시간은 1시간 10분이었다. 면접은 개방적 질문 후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수정·보완하여 연구자의 의도와 연구참여자의 관점을 결합시켰다. 구체적으로 심층면접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국제결혼을 어떻게 결심하게 되셨나요? 둘째, 국제결혼을 하시고 난 후 어떠셨나요? 확대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셋째, 임신 소식을 듣게 되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자녀를 키우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넷째, 다문화가족의 어머니, 아버지 역할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섯째, 자신이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곱째,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이었다. 면접은 녹음되었으며, 모두 전사되었다. 전사 후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해석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연구자가 선택적으로 2차 면접을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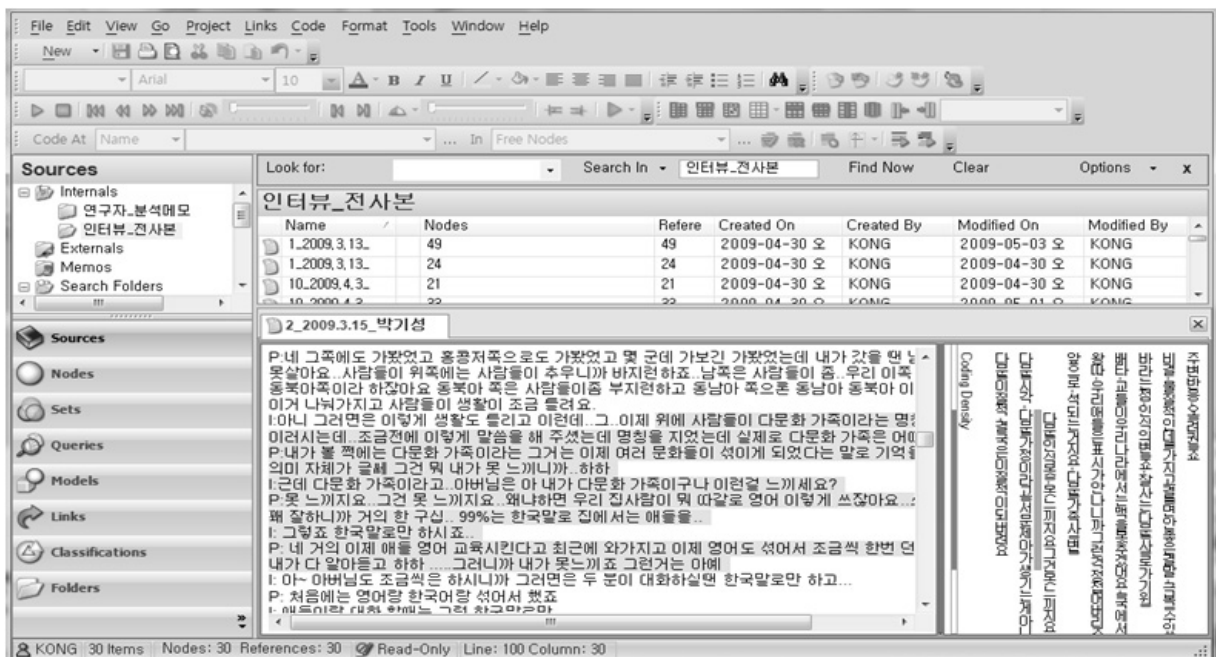
본 연구는 Creswell(2003)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 6단계와 질적자료 분석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Nvivo 8(2008)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 분석한 것은 전체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의 장점과 Nvivo가 가지고 있는 자료관리의 유용성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Nvivo 8을 활용하여 초기연구에서 진행한 코딩의 시작에서 범주화에 이르기까지를 제시함으로써, 진행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엄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은 구체적으로 전사된 자료와 현장노트, 연구자의 분석메모와 반성적일지 등 수집된 전체 자료를 조직화하였다. 전체 자료를 속독함으로써 국제결혼한 부부들 각각의 개인진술 등 중요한 의미단위를 찾아내 먼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 후 부부간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중심주제(theme)들을 구체화하였다.

Nvivo 8를 이용해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전사 자료를 읽으면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을 연구자가 코딩하였다. 이렇게 의미코딩 된 것을 하나로 묶어 범주화 시킴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술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과정, 범주, 의미단위 등을 분류하여 이름(코딩)을 부여하였고, 통합적인 결과를 표로(표 2)제시하였다. 다음은 Nvivo 8를 이용하여 의미코딩 하는 과정[그림 1]이다. 의미코딩 한 결과 총 840개의 의미코딩 수가 나왔으며, 의미코딩을 바탕으로 범주화한 결과 23개의 의미단위로 구성된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 다문화 가족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전략들을 사용했는지, 이러한 전략에는 차이가 있는지 개념과 개념 저변에 있는 가치, 신념, 정서는 어떠한 것인지를 추출하였다.

점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연구절차의 타당화 검증과정으로 추가하였다.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지는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이나 관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전원은 TOPIK시험을 본 경험이 없었으며, 평가결과 평균 81.3점으로 면접을 진행하는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신뢰할 만하다.

참여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연구의 목적, 절차, 비밀보장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각각 1부씩 작성하여 보관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데 있어 철저하게 비밀보장을 유지하고자 타인에게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검토해보도록 요청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가명으로 처리되었고, 연구참여자들이 면접 중 거론하는 자녀이름 또한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그림 1] 의미 코딩하는 과정

4. 연구의 타당화 검증과 윤리성

본 연구에서는 동료집단의 조언과 지적(peer debriefing), 반성적 일지쓰기(writing reflective journal), 연구참여자들을 통한 재확인(member checking)을 통해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인 외국인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면

IV. 연구결과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인 남편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결합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혼돈을 경험하였으나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거쳐 조화로운 정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표 2>로 제시하였다.

<표 2>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의 적응과정

과 정	범 주	의미 단위
결합 (72)	국제결혼(72)	국제결혼의 동기(42) 국제결혼과정의 어려움(30)
혼돈과적응 (605)	초기정착의 혼란(43)	타인들의 시선(4) 의사소통의 어려움(5) 문화적 차이(34)
	정착을 위한 노력(34)	한국문화의 습득(10) 모국문화의 계승(24)
	자녀양육(49)	임신과 출산(23) 부모역할 수행 (26)
	확대가족 관계망(52)	처가·본가와와 관계(16) 시댁·친정과의 관계(36)
	다문화가족의 어려움(162)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87) 자녀교육의 어려움(75)
	다문화가족의 대처전략 및 자원(265)	문화차이 인정 및 조율(86) 효율적인 역할분담 (110) 가족의 결속력(37) 다문화성을 기회로 간주(32)
조화 (163)	다문화 ‘가족’ 의 정체성(67)	한국인들의 수용(19) 다문화가족으로서 자각 회색(38) 다문화가족에 대한 타자화(10)
	미래에 대한 기대 (96)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망(22) 후배들에게 조언(14) 다문화가족서비스에 대한 요구(60)

* ()는 코딩수를 의미함.

* 코딩수는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중요한 의미단위를 뜻하며, Nvivo 8을 사용하여 코딩하였음.

1. 국제결혼을 통한 결합

부부로 구성된 연구참여자들의 국제결혼 동기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들의 경우 한국여성들과 여러 번의 결혼 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나이, 학력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되는 실패에 좌절감을 느꼈다. 때문에 스스로 결혼조건에 부적격한 자로 인식함으로써 자의반 타의반 국제결혼을 결심하였으며, 자신의 무능력함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비공개로 결혼을 하였다(#3, 4, 10, 13, 14). 이들은 국제결혼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 외국인과 살아야한다는 것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한다는 일종의 자신과의 심리적인 합일점을 찾는다.

반면,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이유(#6, 7, 8, 11, 14, 15)와 본국 남성들의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임금이 만족스럽지 못해 선진국 사람들과의 결혼을 선택(#1, 2, 3, 4, 5, 9, 10, 12, 13)함

으로써 결혼이 시작되었다. 선진국 사람들과의 결혼은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여자들이 해(한숨) 쯤 그런 거 있어요. 역시고, 재산, 조건 따지고, 우리시절엔 배우지 못하고 돈 없고 그러면.. 조건만 따져 가지고 눈만 높아가지고.. '외국여자하고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외국여자를 선택해 본 거예요. (#11, 남)

필리핀 남자는 일자리 잘 없어요.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조금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나중에 살 때 애들 크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었어요. (#10, 여)

국제결혼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반응도 있지만 언어소통의 어려움,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 특정종교에 대한 반대로 국제결혼의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연구참여자들은 "살면서 보여 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

국제결혼 하겠다하니까 외국 사람하고 살면 도망가네, 사기 치네 그런 말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꼬치꼬치 답변할 순 없고, 내가 사는 걸로 보여 주겠다. (#9, 남)

2. 국제결혼 부부의 혼돈과 적응

1) 초기정착의 혼란

결혼 후 이들은 한국 땅에서의 정착을 목표로 부부, 가족, 지역사회, 크게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신념과 가치관에 혼란을 겪으며 살아간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변한 낯선 환경에 살아가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통하지 않아 대화할 때 의미가 맞지 않고, 그로 인해 불화도 생겨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겪는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피부색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동남아시아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은 배우자가 맘에 들어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을 쓰며, 창피함을 느낀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로 국제 결혼한 불쌍한 나라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타인들의 측은한 시선 때문에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결혼해서 보니깐 말이 제일 불편해요. 처음에 깊은 말 얘기하고 싶어도 못 얘기했어요. 인통하고. 말이 안 돼. 다른 사람처럼 얘기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13, 여)

신혼 때 결혼한 것도 좋았고 집사람도 맘에 들어요. 집사람이 성격도 화끈하고 표현하는 것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때는 대화는 잘 안되지만, '잘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맘이 들었어요. 근데, 밖에 나갈 때 처음엔 부끄러운 맘이 좀 들었어요. 외국 사람처럼 같이 다닐 때 눈치 좀 보이고.. (#8, 남)

국제결혼 후에 이들은 가장 먼저 배우자 또는 가족 간의 문화관습 차이로 인한 물이해와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한다. 한국인 남편들의 경우 한국에 왔으면 한국 땅을 밟았으니까 여자가 남자를 따라줘야 순리(#4, 남)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장남문화, 제사문화, 가부장적인 문화 등 남자들을 중심으로 한 권위적인 문화에 갈등을 겪었다.

밥을 손으로 많이 먹었어요. 그걸 내가 좀 싫어했어요. "한국에 왔으면 한국 밥을 따라야지 왜 그걸 손으로 먹냐 한국에 와서는 손으로 먹는 것도 고치고, 애들 뺏을 적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었어요. (#1, 남)

아버지가 "조심해라 남자들. 한국문화 있다. 남자들이 황제처럼 주방에서 일도 안하고 가만있고 그런다." 한국문화는 너무 이상한 문화예요. (하하) 장남이 장남 아니예요. [사] 아버지 돌아 가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동생, 어머니를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은 저두 이해해요. 옛날엔 이해 못했으니까. (#1, 여)

2) 정착을 위한 노력

지금에 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체계가 부족했던 10여년 전 결혼이주여성들은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한국 문화를 습득하려 노력했다. TV를 통해 듣기와 말하기를 하거나(#12), 친정식구들이 보내준 책(#2, 3, 4, 6, 7, 9)으로 학습하였다. 한국인 남편들은 한국의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부인과 함께 다니며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한국음식 요리법을 가르쳐 주고, 한국어 가르쳐주기 등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인 남편들은 자녀들은 물론 상대 배우자에게 각자의 본국문화가 계승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언어, 관례, 풍습 등을 가르치며 본국문화의 계승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인 남편들의 경우 한국이라는 환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워 나갈 수 있다는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비교적 소극적으로 한국문화를 가르쳤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본국문화를 가르쳤는데, 특히 자녀들에게 본국어를 가르치는데 열성적이었다. 원가족들과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특이한 사항으로 한 참여자(#13)는 자녀에게 본국어를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본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대리양육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부는 자녀, 배우자에게 상대방 문화를 학습시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음식 나한테 특별히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맛을 간 보고, 또 책 보고 음식도 보면서 '이거 뭐 뭐 들어갔나?' 이거 알아보고 시어머니는 별로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도 안하니까(하하). (#2, 여)

집사람도 책보고, [도] 책보고 말하고. 명동에 유네스코인가? 거기서 한글 공부하고. [길]을 모르니까 같이

왔다갔다 했죠. (흐흐) (#5, 남)

3) 자녀양육

자녀를 출산하는 가족은 많은 변화와 긴장을 경험한다. 부모가 아닌 상태에서 부모역할로의 갑작스러운 이행은 경험 없는 부부들에게 있어 상당한 긴장을 유발한다. 특히, 다문화가족들의 경우 초기적응 과정 중에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1~2년 안에 임신이라는 사건으로 부부관계에서 가족의 탄생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맞게 된다. 임신의 기쁨, 고마움, 책임감을 느끼며 부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희망과 걱정을 공유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남편의 경우 임신사실의 기쁨, 자신의 2세에 대한 기대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보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임신의 기쁨을 느끼고, 임신 중 영양 상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입덧시기 중 본국으로 가는 경우(#10, 12)도 있었다. 이들은 출산 후 남편이 주도적으로 산후조리를 담당함으로써 남편의 역할이 부각되어 있었는데, 한국에서 산후조리 시 먹는 미역국을 매일 끓이고(#3, 남), 요리하고, 미역국 하고. 청소나 빨래도 남편이 집에 와서(#10, 여)하는 등 가사 일을 분담하였다.

문화적 차이와 충돌을 경험했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양육이라는 합일된 공통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조율하면서 균형을 맞추어 적응하기 시작한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공교육이 시작되면서 자녀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되는 교육에 힘쓰기 시작한다. 이들은 서로 엇갈리는 교육관에 대해 상호 보완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 부모로서 자녀가 감정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밤에 잘 때 오늘 슬픈 일 뭐 있었어? 물어보면 친구들이 "너는 태국 사람이야." 그랬대요. 저는 "현지야, 한국사람 중에 가수 피부 까만 사람 있지? 선수도 있지? 그래 현지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마음 슬퍼하지 말고." 현지 피부색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처럼 나왔어. "귀에 바람이 있다고 생각해라. 바람처럼 버려." 완성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피부색으로 판별하는 게 아니다. 친구들 사귀면서 누가 자주 나쁜 말 하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는 학교 바로 갈꺼야. 엄마는 바로 그 사람 만 날꺼야. 무서워 하지마. (#9, 여)

공교육이 시작되면서 부모님이란 이름으로 학교를 간다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였다.

본인이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수함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었고, 쑥스러움, 석연함, 불편함 등의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면 설명도 잘 못 들어. 한국말 때문에 이해 안 돼. 외국사람 없잖아요. 혼자가고(#6, 여)." 한국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참여자 모두는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 참여자들이었다. 이들은 본인들과 동질집단을 찾지 못해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이질적으로 분리되는 상황이 싫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것이 결혼이주여성들의 태도였다. 한국인 남편들은 학교가기에 대해 위축되어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신하여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필요시 학교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1, 4, 5, 8, 11, 12, 13). 물론, 적극적이진 않지만 학교모임에 참석하는 결혼이주여성들도 있었다(#1, 3, 8, 9).

4) 확대가족 관계망

다문화가족들은 새롭게 생성된 확대가족들과 관계를 맺으며 좀 더 확장적으로 사회화 과정을 발전시켜 나간다. 한국인 남편들은 처가와 물리적인 거리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아내를 통해서만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한다. 존재는 하고 있으나 기능적인 면에서 부재인 상태로 생활하며, 처음부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함은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처가댁에 자주 연락 안하는 게, 집사람이 처가집에 전화를 해야만 장인 장모를 바꿔달라고 하지 나는. 난 태국 말 모르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지. 안녕 그것만. (#9, 남)

반면, 본가와 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한국인 남편들은 '효'라고 하는 전통문화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을 표출하였다. 경제적인 이유와 고부갈등이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였는데, 분가를 하게 된 결정적요인은 고부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한국인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효라는 가치관을 고수하여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의견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부인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빚자 결국 합의하에 분가라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시고 살고 싶은 속마음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들 엄마가 할머니 (어머니) 를 싫어해요. 한번 씩

올라오면 그때 잠깐 좀 모시고, 있을 때만 좀 잘해주고 가버리면 말도 못 꺼내니까. 고부간의 갈등 그런가 봐요. 아휴(한숨) 모르겠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싫은 내색 안하죠. 그런 거 보면 안 좋죠. 나는 지금이라도 엄마 여기 올라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이 살고 싶은데 애들 엄마가 싫어해버려요. 그래서 안 해요. 애들 엄마만 좋아하면 난 언제든지 할머니 (어머니) 데리고 오고 싶거든요. (#14, 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시댁과 고부갈등을 경험한다. “우리 어머니 진짜 착해요(#5).” “시어머니 때문에 맘속상한 거 없어요(#9).” 라고 평가하는 참여자들도 있지만 모든 참여자들(#1, 6, 9, 12, 14, 15)의 분가원인은 고부갈등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에 대해 시어머니의 비하, 몰이해, 몰인정, 자녀교육의 주도권 쟁탈 등의 이유로 고부간의 갈등을 빚고 있었다. 자녀교육에 있어 한국어와 모국어 가르치기의 결정여부와 장남, 제사문화 등의 전통문화 고수에 대한 두 가지 형태의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말 절대하지 하지 말라고, 엄마라는 여기보다 못산다. 불쌍하다. 못사는 나라다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좀 섭섭하죠. 그럴 때마다 같이 살면서 좀 싸우게 되죠. 직접 (싸우지) 못 하니깐 그냥 “태국 괜찮다고. 이렇게 안 가르치면 아들을 국제결혼 왜 시켰냐.” 고 그렇게 많이 했죠.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태국 말을 했어요. 애들도 많이 했어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애들 위해서니까 싸워도 어쩔 수 없어요. 중간에서 (남편은) 스트레스 많이 받죠. (남편은) 애들 두 국적 가지고 있고 태국 말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머니가 심하게 잔소리하면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럴수록 저는 ‘애들 더 강하게 키우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결국, 3년 동안 같이 살다가 싸워서 나왔어요. 애들 어렸을 때 제가 다 따라서 시는데 이제 애들 좀 크면서 애들한테 내가 뭐해 줘야 되겠다 하니깐 부모님 쪽은 그냥 자기생각만 갖기 때문에 저도 따라갈 수 없어요. 시부모님은 반대하고 복종해야 되고 하니깐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틀리잖아요. 저도 모시고 살고 싶은데 너무 틀려서 그냥 제가 애들하고 나와서 같이 살다가 남편은 따라 왔어요. 시어머니랑 가끔다가 연락해요. 애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좀 전화해라.” 근데 저는 직접 하는 건 많지 않아요. 별로. 근데 애들은 많이 시켜요. (#12, 여)

본 연구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자주 왕래하지는 못하지만, 애경사 때는 물론 설 연휴, 자녀들

의 여름방학 등을 이용해 본국을 방문하였다. 친정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시기도 하고, 평상시에 빈번한 통화로 친정식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5) 다문화가족의 어려움

본 연구의 참여자 모두는 한국에서 인종적 편견을 경험하였다.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은 백인만을 환대하며, 동남아권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동남아권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차가운 사회의 시선을 자각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단일민족의 배타성과 한국인들의 우월의식은 다문화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거부감과 적대감을 느끼게 하였다. 차별의 주요인은 민족 동질성에 대해 피부색으로 단순하게 구분 짓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 자녀들 경우 또한 피부색이 한국인들과의 유사여부에 따라 따돌림의 경험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족이라는 사실이 편견을 낳기 보다는 피부색의 동일여부에 따라 동일 민족인지가 판가름 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은 업신여겨. 깎박 말도 함부로 하고. 미국 놈들한테는 굽실거리고. 그런 습성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단일 민족국가 단일민족국가 하는데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만큼 외침을 많이 받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여자들 외국놈들 들어오면 개들이 싸만 뿌리고 가버렸잖아. 그럼 여기서 낱아서 기르고 그랬지. 원래 우리나라 민족은 쌍꺼풀이 없다고 그래요. 쌍꺼풀이 있다는 거는 다 짬뽕이라는 소리예요. (#15, 남)

얼굴 색깔부터 다르니까. 지금은 그렇게 별로 표가 안 나는데 그전에는 하다못해 시장가서 밥을 먹으면 근처에 안 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면 (국제결혼) 친구들끼리 단체로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10, 남)

필리핀 엄마라고 친구들이 같이 안 놀아요. 같이 놀게 안 해요 부모님이. 한번은 은미가 1학년 때 부모님들 대청소 하는데 갔어요. 근데, “필리핀사람 같이하는 거 싫어요. 징그러워. 그냥 집에 가요 애기엄마.” 이렇게 애들 엄마들이 나한테 그랬어요. 그때부터 다시 학교 못가요. 엄청 맘 아파요. 울기도 하고. (울음) 학교생활을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갔어요. 은미가 6학년인데 지금 6

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엄마오고 그러면 애들은 은미 계속 놀렸어요. (#4, 여)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으로서 겪는 어려움 중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먼저 꼽았다. 구체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는데 언어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어려움은 어떤 언어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당면한 문제로 받아들여졌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2세들을 위한 외국 교육 그런 게 없으니 까 다 한국인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한국말 배우고, 한국 공부해야 되잖아요. 엄마들이 말도 잘 안 통하는데다가 한국공부를 해도 금방 잘 안 되잖아요. 한국말 배우기도 힘든데,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참엔 좀 힘들었죠 그게. 우선순위가 환경적인 것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거죠. 어머니 나라 공부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들은 자기나라 말로 하면 쉬운데, 한국말로 해야 되니까 진짜 어렵잖아요. 차라리 엄마가 한국말 배우는 거보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 나라말을 배우면 대화가 더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해요. (#8, 남)

제일 걱정 하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애들 학원이나 방과 후도 자주 못 보내요. 불쌍하고 안타깝잖아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안타까워요. 항상 애들한테 미안하고 많이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고 신랄도 자주 일 그 만두니까 너무 어려워서. (#2, 여)

6) 다문화가족의 대처전략 및 자원

(1) 문화차이 인정 및 조율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은 일상생활에서 개인 간 문화의 차이와 개인 내 욕구와의 충돌이 생기면서 긴장상태를 경험한다. 구체적으로, 식사예절, 화장실문화, 음식문화, 가족문화 등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점차적으로 배우자를 인정하면서 서로간의 간격차이를 좁혀나가기 시작한다. 문화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해 나가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은 ‘이해하기’와 ‘대화하기’이다. 이들은 이해하기와 대화하기의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달랐던 가치관의 타협점을 찾는다.

문화가 안 맞으니깐 그것 때문에 그런 (힘든) 것 같아요. 얘기 해야죠! 대화도 하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애

길 해야 돼요. 들어보고 될 것 같으면 들어주고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야 되요. 싸워서라도 찾아야 되요. 대처방안이랄까 했던 건 대화로서 타협점을 찾는 것. 대화를 많이 해야 되요. 대화를. (#10, 남)

한국 사람들은 부인 말 배우는 거 싫은가 봐요. 여자만 바꾸면 안 되고, 남자도 해야죠. 기현이 아빠한테 가운데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만 한글 배우는 거 아니고 기현이 아빠도 조금씩이라도 배워야죠. 또, 처음에 싫은 거 얘기해야 돼요. 가르쳐야죠.(하하) (#5, 여)

(2) 효율적인 역할분담

연구참여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전통적인 대립보다는 상호보완으로 규정하며 협동적인 역할수행을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남편은 생계부양의 역할, 부인은 자녀양육 및 가사 담당 역할을 맡는 것을 당연시 하는 역할분리에서 벗어나 역할을 공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한국인 남편들은 가사 일을 분담하고 있었으며, 경제활동의 시간이 장시간인 참여자들의 경우만(#7, 15) 가사 일을 분담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들 보살피고 키우고 그러는 것은 같이해요. 애기엄마가 학원에서 강사를 한 3년을 했어요. 그래서 애기엄마가 아침에는 애들 유치원도 데려주고 학교도 데려주고 하고 제가 오후 2시에 마치고 와 가지고 아이들 돌보고 집에 못한 설거지하고 빨래도 하고, 빨래한 거 널어 놓고. (#1, 남)

애들 보살피고 키우고 그러는 건 우리 똑같이 해요. 어렸을 때 분유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막 깨우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내가 안 일어나면 아빠가 일어나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했던 거 같아요. 지금도 요리 같은 거나 애들 숙제 같이 하고. (#11, 여)

본 연구의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인 남편들은 상대방의 역할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출하였다. 본 연구자는 역할만족의 정도를 알기 위해 수치화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자기 평가와 더불어 한국인 남편의 입장에서 본 어머니로서, 부인으로서의 역할점수와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 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점수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이유에 대해 다시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 남편들의 경우 경제적 빈곤으로 풍족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자책감으로 아버지 역할과 남편역할에 대해 낮은 점수로 자신을 평가하였다.

이것은 남성이 생계를 부양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한국인 남편의 관점에서 본 어머니역할은 충분한 언어적 지원과 학습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만 자녀들과 충분한 정서적인 지원을 함으로 어머니 역할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다. 부인에 대한 역할 만족 또한 높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역할은 110점 되지요. 100점 만점에. 110점.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다보니까. 첫째로 내가 제일 미안하지.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밖에서 이렇게 벌어야 되니까. 그거 때문에 내가 점수를 많이 한거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더라고. (#7, 남)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는 2명의 참여자(#13, #15)만 제외하고 모두 어머니역할에 있어 85점~100점으로 자기를 평가함으로써 어머니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남편의 성실함, 역할분담의 만족감을 보이며 아버지 역할과 남편역할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았던 2명의 결혼이주여성(#7, #14)들은 자녀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으므로 점수를 알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자녀의 성장이 부모역할의 끝이며, 자녀가 성장을 해야만 부모역할의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한다.

역할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2명의 참여자(#13, 15)만 제외하고 모두 어머니역할에 있어 85점~100점으로 자기를 평가함으로써 어머니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정서적인 밀착에 중점을 두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 비해 본인과의 유대관계가 높다는 점, 대화를 많이 나눈다는 점, 많은 시간을 공유한다는 점, 자녀의 친구와도 원만한 관계를 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역할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머니로서의 자신감은 다문화가족자녀들의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의 결속력을 높이는데 바탕을 마련하였다.

엄마로서 100점 중에 100점.(하하) 난 엄마로서 100점이다. 저는 다 설명해요. 아기는 몇 시 몇 시 자요, 저는 일 갈 때도 체크 “현자야 지금 어디 있어?” 관심을 갖아요. 밤에도 불려서 얘기 많이 하고.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엄마 일 할 때는 100% 일, 집에 있으면 엄마 100% 해요. 행복해요. (#9, 여)

(3) 가족의 결속력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가족을 정의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개념, 가치,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가족’ 하면 행복, 사랑, 소중, 책임, 힘, 에너지, 위안, 쉼터, 자랑스러움 등 긍정적인 단어를 연상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가족의 존재는 책임감을 가지게 하며, 행복감과 사랑을 느끼게 하고, 힘들 때는 편안한 안식처와 같은 쉼터였다. 즉,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다문화가족으로 살아가는데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가족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되게 힘들지요. 가족은 저한테는 힘이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천이다. 에너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이 있으니까 위안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 힘을 충전하고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좋지요. (#6, 남)

가족이 모여서 자는 날이 있어요. 25일마다 가족 자는 날. 따로따로 자다가 애들이랑 매달 25일 날 같이 자요. 애들이 좋아해요. 아빠도 좋아해요. 아빠로서 아빠는 잘해요. 저 늦게 오는 날 있는데 아빠가 밥 다해주고 빨래 있으면 빨래하고 설거지도 하고요. 우리 애들도 다 큰 아빠는 설거지 안하는데 우리 아빠는 앞치마 하고 하니까 아빠는 잘하는 거 같아요. 100점 중에서 90점? 100점은 내 생각에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11, 여)

(4) 다문화성을 기회로 간주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들은 다문화가족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강점을 살려 특성화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현재를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무기로 둔갑할 것이라는 바람, 희망, 기회로 간주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드러난 현상은 바로 ‘이민계획’이라는 현상이었다. 이들은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과 결혼이주여성가족의 지지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기회로 간주하여 이민을 계획하고 있었다. 소수 참여자(#10, #15)들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구체적, 도피적, 대리적인 이민계획을 들을 수 있었다.

저는 태국 가서 살고 싶어요. 애기 엄마가 태국 사람인데 적응 할 필요 없고요. 음식도 다 적응이 됐고 이민 가서 살 때는 제가 맞춰나기만 되는 거니까. 돈만 있고 여건만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요. 한국은 너무

살기가 힘들고. 경제력 때문에 그렇죠. 거기가선 편하죠. 중산층으로 살 수 있으니까 더 편하고 한국보다 낫지요. 오히려 이민 갈 때 다문화 가족이라서 태국을 가게 되면 장점일 수가 있죠. 다른 나라 가는 것 보다 태국 가는 게 편하고 거기 장인, 장모 다 있고 처제 있고 처형도 있고 편하죠. (#12, 남)

3. 국제결혼부부의 조화로운 정착

1) 다문화가족의 정체성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들은 결합, 혼돈과 적응의 시기를 거쳐 조화로운 정착을 하였다.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 수용적인 태도와 이들의 노력이 합쳐져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들은 결혼 초기에 적대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대면했던 한국인들이 지금은 수용적으로 자신들을 받아주고 있다고 자각하고 있었다. 10여년 동안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한국인들과 소극적 혹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이 희석되어 갔다.

지금은 좀 많이 괜찮죠. 옛날에는 외국 사람들한테 할머니들이 “외국사람, 너 왜 와? 내 나라 돈 가져가는 도둑놈” 이런 거만 생각했잖아요. “친정에 돈 한 달에 얼마 벌어서 남편 돈 빼갔어?” 기분은 좀 나쁘죠. 애기 아빠 돈 빼갔으면 좀 괜찮았죠. 근데 돈 안 빼가잖아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사람 마음 많이 받아주잖아요. (#15, 여)

이들은 적응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외국인가족이라는 것에 무더졌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신을 ‘다문화가족’이라고 자각하기 보다는 ‘가족’이라는 일반적인 범주의 정체감을 형성하였다. 즉, 평상시 ‘다문화가족’임을 느끼지 못하는 불감(不感)현상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똑같아요(#2, 3, 4).”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한국인들과 다른 부분은 없다고(#7, 남) 설명하였다. 복지단체에서 하는 다문화가족행사 때 초청을 받거나,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언제 언제 오라고 얘기하니깐 느끼는 건데 평상시에는 그런 거 못 느껴요(#10, 남).”라며 일관된 목소리를 내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변화된 한국 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아닌 한국인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문화정체성의 재구성을 통해 고유의 정체성을 생성하여, ‘다문화’ 가족의 정체성이 아닌,

다문화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정체성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남편의 적응과정이라는 연구주제에 가장 핵심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내 이름 말 하면 그때 다문화가족 알아차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문화가족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이름 이야기 할 때, 누군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 다음에 보건소 다문화가족 검진하라고 그럴 때, 그 다음에 복지 회관에서 어떤 프로그램 있을 때 다문화 가족 참석 하라고 그럴 때 다문화 가족 느껴요. 평상시에는 못 느껴요. (#11, 여)

또한,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하면 “외국인들 가정(#9, 남)”이라고 일관되게 답하면서, 다문화가족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객관적인 존재에 벗어나 다문화가족임을 타자화 시켰다. TV와 같은 메스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다문화가족들과 자신들을 분리시켰는데, 주목할 것은 도시다문화가족인 이들은 농촌다문화가족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여기며, 계층을 나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기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국제결혼 많이 해요. 농촌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잖아요.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골에 외국 분들이 와서 대부분 대학교 나와 가지고 한국 왔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사람은 일본말 잘하고 하는데, 도시에 살고 있으면 학원 같은데 나갈 수도 있고. 학교 같은 데도 취직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농촌 총각들이랑 결혼해서 사니까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농촌으로 시집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농촌 총각들은 처음에는 대화도 안 되고 해서 살아가는 데 더 힘이 들 거 같아요. (#8, 남)

다문화 가정 애들이 한국말이 좀 힘들다고 그랬어요. TV에서 다문화가족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눈물 나죠. 언어지체로 말할까. 마음이 아프죠. 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근데 꼭 TV 나올 때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시골이라 학원 같은 거 안 보냈었나 아니면 유치원 같은 거 안 보냈었나? 유치원 보내면 애들끼리 한국말 배우잖아요. 어머니 말 안 해도 아니면 아빠 안 해도 유치원선생님이나 자기 친구나 한국말 배우잖아요. 그런 거 안 보냈었나? 궁금했죠. 어떻게 1학년 다녔는데 왜 언어가 안 되나? 막 그런 걱정도 됐죠. (#11, 여)

2) 미래에 대한 기대

연구참여자들은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계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며, 강대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미래의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에는 저 출산과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짝이 안 맞게 되어 외국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결혼(#5, 남)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화로 인해 국제결혼이 보편화되고 활성화(#6, 남) 될 것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수적인 증가로 다문화가족은 포화상태(#2, 남)에 이를 것이며, 지속적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11, 여), 이해와 사랑(#2, 여)으로 결국 흡수 통합되어 한 마음 한 가족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 모두는 ‘가족’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생활한 방법에 대해 후배들에게 사회가 움직이는 것보다 가족 내에서 부부 간에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고(#3, 남), 대화하기, 이해하기, 역할분담하기의 전략을 사용할 것을 공통적으로 권장하였다. 한국의 문화습득은 필수이며, 부부간 서로 존중과 인정, 타문화수용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정착과정에서 저해가 되는 두려움을 없애고 한국 사람들과의 적응과정에서 적극성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 하였다.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하는데 무서워하지 말구요. 나는 다르다 생각하지 말구요. 같은 엄마, 같은 부모, 똑같이 낳았잖아요. 부모회 이런 거 가요. 한국말 못 하니까 그거 하지 말구요 한국말 못 하지만 아 이 위하기 때문에 가야 되요. 한국 엄마들이 가끔 “외국 사람이구나.” 많아요. 근데 착한 엄마도 있어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가연이 엄마예요.”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인사안하고 조금 멀리 가면 한국 사람들이 멀리가요. 외국 나라오면 본인의 머리 (의식) 좀 바꿔야 되요. 먼저 바꿔야 되요. 다른 사람 문제 있으면 나도 문제 있다. 문제 없으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된다. 무서워하지 말고 나는 필리핀사람이야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요. (#1, 여)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 국가적 책임이 있다는 공통된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다문화가족 서비스에 대해 이들은 국가의 노력에 긍정적인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복지혜택, 까다로운 절차, 외국인들에게 차별적인 법률제도, 다양한 서비스 부족, 명목뿐인 혜택, 차별에 대한 인식전환의 홍보부족, 미비한 교육시스템 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복지혜택의 수혜과정에 있어 다문화가족들이 대상화

되는 것에 대한 거북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다문화 가정을 생각하고 시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이 차이가 나요. 좀 통일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또, 하다못해 쌀 20kg라던지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싶다는 거죠. 복지관 같은 데는 자기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쓰는 것도 없고, “다문화 가정이니까 이런 혜택 받으세요.” 라고 그런 연락도 없어요. 자기들 아쉬울 때만 우리들한테 전화해서 다문화 행사 있을 때 사람 몇 명 필요한테 그런 연락이 올 뿐이지, 신경 안 쓰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싫은 거지. (#12, 남)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10여년 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의 적응과정을 탐색해보고, 그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의 대처전략에 대해 심층 고찰 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들은 결합, 혼돈과 적응의 시기를 거쳐 조화로운 정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합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국제결혼배경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들은 한국에서 배우자를 찾기 힘든 불충분조건자로 자신을 규정하면서, 불가피하게 국제결혼을 결심하였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와 본국 남성들의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임금이 만족스럽지 못해 선진국 사람들과의 결혼을 선망함으로써 국제결혼을 선택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종교단체의 중매로 결혼한 이들은 본인의 결혼목적과 일정 금액을 맞바꾼 것은 공정한 거래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일종의 매매혼적 성격을 띤 국제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제결혼에 대해 이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혼돈과 적응이라는 시기에 연구참여자들은 혼란과 다문화가족으로서 어려움을 겪지만 정착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다. 특히, 한국인 남편보다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주도적인 모습이 강하게 드러났다. 건강한 적응은 융통성(flexibility), 자발성(spontaneity), 창의성(creativity)의 특성을 갖는다(Barron, 1963). 이러한 특성은 가족체계이론 중 상호의존성과도 연결되어 해석되어 지는데, 결혼이주여성의 적극성, 주도성, 자발성은 한국

인 남편과 이들의 자녀에게 건강한 적응을 하는데 동기를 부여하였고, 이러한 동기가 전이되어 다문화가족으로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심리적 강화는 물론, 가족의 존재가 부가가치가 되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양성적 부모역할(*androgynous parenting roles*)을 수행함으로써 대처전략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하게 된다.

본 연구의 한국인 남편들은 권위적이기 보다 넉넉지 못한 경제력의 미안함을 가사분담, 성실함으로 대체하였고, 결혼이주여성들은 불충분한 언어자극의 미안함을 낮은 환경에서 적극적인 적응노력으로 대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각각 자신의 손해와 이익이 교체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사회교환이론적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주여성은 각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상대방이 채워줌으로써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상호 보완하여 결혼만족이라는 상승효과의 결과를 가져왔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 요소인 권위적인 관계와 역할갈등은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보상을 주었고, 이것은 곧 결혼만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관계가 자신에게 보상적일수록 결혼 만족도가 상승하고 반대로, 손해 본다고 생각할수록 결혼만족도가 하락한다(Burr, 1973)는 주장을 뒷받침 한다. 또한, 국제이주여성이 부부관계에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김진옥(2007)의 연구결과와 맥을 함께 한다. 이처럼 국제결혼 한 부부는 차이점을 탐구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강한 친밀감과 상호이해를 경험한다(Heller & Wood, 2000)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저변에는 이들 부부의 권력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집안일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남편은 경제력을 통해, 부인은 개인적 권력을 통해 집안일을 적게 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부인의 경우 개인적 권력이 커질수록, 집안일과 가족 관리를 적게 담당한다는 점에서 부인의 개인적 권력은 가사분담의 결정요인으로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명신, 2001).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 내 개인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사분담의 결정적인 요인 또한 부부간 권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정 내 권력이 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국제결혼한 시기가 IMF라는 경제위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가족부양 능력이 남성의 권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한국 사

회에서 대부분 한국인 남편들(#1, 2, 5, 6, 8, 9, 10, 13, 15)은 1997년 말 이후 IMF 경제위기의 한파와 맞닿아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IMF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분위기는 가족 내 그들의 권위상실감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물론, 참여한 한국인 남편들은 실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IMF 때문에 불안하고 위축된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10여 년 전 짝 국제 결혼 한 이들은 지금 결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과는 달리 경제위기라는 환경적인 요소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는 가족 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인 남편들이 경험한 죄책감, 미안함 등의 감정과 ‘경제한파’의 부정적인 요소는 자신을 가족부양자로 간주하면서 가족 내 권력행사에 더욱 소극적이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가족, 이민가족, 카톨릭 가족 등에서는 남편의 권력이 높지 않다(조정문, 장상희, 2007)는 주장과 맞물려진다.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인 이들 부부가 권력을 분화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부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다문화가족이라는 가족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남편이 의사 결정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아내의 결정권이 확대되는데(이은숙, 1977), 연구에 참여한 이들 부부는 확대가족과의 관계, 자녀양육, 모국문화 계승의 적응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의사결정권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 내 의사결정권을 아내가 쥐고 있을수록 남편은 권위상실감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임인숙, 2000). 이러한 권위상실감은 한국에서 3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형성된 남성다움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하여 한국인 남편들은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다. 즉,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가사분담을 함으로써, 전통사회의 역할분리에서 벗어나 역할을 공유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학력이다. McDonald(1980)는 개인적 자원, 규범적 자원, 인지적 자원, 경제적 자원, 감정적 자원에 따라 부부간의 권력이 변화된다고 하였는데, 여러 가지 자원 중 인지적 자원이 이들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1명을 제외하고 대학교 이상이라는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혼 전 대학교수, 교사, 은행원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 한국인 남편들은 면접하는 내내 자랑스러움, 과시, 대리만족, 능력 있는 부인을

차별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때문에 자신보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용,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의 가정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권위는 신장 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국제결혼이라는 결합을 통해 혼돈과 적응의 시기를 거쳐 다문화가족으로서 '조화로운 정체성'을 확립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결혼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지금의 한국인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로 변화했다고 자각하고 있었다. 통계청(2008)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절반 이상이 외국인과의 결혼해도 상관없다(56%)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라는 모호함은 인종적 편견에 따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통계는 한국인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태도의 변화와 연구참여자들의 노력이 합쳐져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본인들이 외국인가족이라는 것에 무더졌고, 10여년이 흐른 지금은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불감(不感) 현상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개인이 속한 작은 맥락인 '가족'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로운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신들은 똑같은 한국인 가족이라는 개념을 성립하였다. 다문화가족임을 알고는 있지만, 평소 자각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모순적이기는 하나 '다문화' 가족으로서의 정체성보다 다문화 '가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나와 타인, 개인과 사회 또는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차선, 2000)을 발휘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태도, 대화와 이해하기의 전략을 사용해 문화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기, 효율적인 역할분담하기, 다문화의 특점을 살려 다문화성을 기회로 삼기 등의 다양한 적응전략으로 내면화 한 강한정체성은 한국에서 '바람직한 적응'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당사자인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을 통해 적응과정을 탐색하고, 어떠한 적응전략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주체의 특성상 도시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농촌다문화가족을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농촌다문화가족들과의 비교를 통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동안 어려움을 주제로 국한되었던 다문화연구에 확장적인 연구로 공헌하였다. 둘째, 국제결혼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대상인 남성도 함께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왔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객체의 차원에서 벗어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함께 탐색해 봄으로써 부부관계에서 가족관계까지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의 분석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Nvivo 8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전통적인 질적 연구 분석방법도 병행하여 분석에서 치밀한 과정을 거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한국인 남편, 적응과정, 다문화가족, 정체성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가정 품어 안는 교육 지원 대책 발표**.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제결혼 이혼상담, 女폭력 男 가치관. (2009, 4. 20).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09, 4. 30, 자료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4/20/0200000000AKR20090420161400005.HTML>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오남. (2008).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 경기도: 집문당.
- 김진욱.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실태 분석-홍성군의 베트남 출신 부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인간관계학보**, 12(1), 1-17.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 부(父)선진국·모(母)개도국 출신, 한국 다문화가정. (2009, 11. 22).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09, 12. 23, 자료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

- 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0%80%ec%a1%b1%ea%b4%80%ea%b3%84%eb%93%b1%eb%a1%9d%eb%b6%80&contents_id=AKR20091121067900004&search=1
- 이명신. (2001). 전문직 맞벌이 부부의 권력구조와 가사분담. **사회과학연구**, 19(1), 43-78.
- 이운죽. (1977). 한국가족의 부부간의 권위관계에 대한 유형적 접근. **한국사회학**, 11, 95-107.
- 이용숙, 김영천. (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이정희.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 위기에 대한 사례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여성이 울고 있다. (2009, 1. 15).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09, 2. 10, 자료출처 http://boomup.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15/2009011500382.html
- 이차선. (2000).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제주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백경논집 제 2집**.
- 임인숙. (2000). 경제위기가 남편의 권위상실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 1105-1127.
- 조정문, 장상희. (2007). **가족사회학**. 서울: 아카넷.
- 채옥희, 홍달아기. (2008). 피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91-902.
- 최금해. (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2(1), 143-188.
- 최연실. (2008). 인구통계자료에 나타난 한국인 국제결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79-298.
- 통계청. (2008). **인구동태조사(혼인, 이혼)**.
- 통계청. (2008). **2008년 사회조사(보건·가족 부문) 결과**.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제14회 한국어능력시험 실무한국어(B-TOPIK)**. <http://www.topik.or.kr>.
- 한국 시집 온지 1년 만에 음독, 스무 살 뚜엿 전신마비. (2008, 10. 30). **한겨레**, 자료검색일 2009, 1. 10, 자료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8978.html
- Barker, R. (1991). *The social work dictionary*, 2nd edition. Washington, DC: NASW Press.
- Barron, F. (1963). *Creativity and psychological health*. Princeton, N. J. : Van Nostrand.
- Burr, Wesley R. (1973). *Theory Construction and Sociology of the family*. N. Y. : John Wiley and Sons.
- Creswell, J. H.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2nd ed)*. Thousand Oak, CA: Sage.
- Gibson, M. A. (2001).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 19-23.
- Heller, P. E. & Wood, B. (2000). The influence of religious and ethnic differences on marital intimacy: Inter marriage versus inter marriag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6, 241-252.
- McDonald, G. W. (1980). Family Power: The assessment of a decade of theory and research, 1970-1979.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 841-54.

접 수 일 : 2010. 11. 12.
수정완료일 : 2010. 12. 16.
게재확정일 : 2010. 12. 16.